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위·지·통 빅데이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책  
[발제자] 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  
[일 시] 2022년 5월 26(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 제399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와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 빅데이터 기술과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와 시장경제를 넘어 구독경제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현재 어느 지역이 얼마나 불균형 상태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좌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성 영상·지리 정보시스템·통계 좌표를 활용한 빅데이터 융합으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 농산어촌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역구독 주택, 역구독 토지 정책을 제언한다. 역구독은 돈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농촌의 집과 토지를 청년들이 돈을 받고 쓰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청년들의 생애 최초 역구독 창업 지원도 필요하다. 역구독 창업이란 창업을 하면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 월급은 정부가 개인데이터 사용을 통해 얻은 데이터 사용 이익이다. 이를 청년 창업의 월소득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 코로나 이후 현재 우리 사회

- ◆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와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 빅데이터 기술과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와 시장경제를 넘어 구독경제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현재 어느 지역이 얼마나 불균형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다.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통계 좌표를 활용한 빅데이터 융합으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 ◆ 빅데이터의 개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제언

- ◆ 빅데이터는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기계 센서에서 흘러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의 바다를 가리킨다. 빅데이터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세스와 정책을 향상하며 고객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빅데이터는 단지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특성의 다양성과 정확성, 가치로 인해 “빅”으로 정의되었다. 빅데이터는 기상위성, 사물인터넷 기기, 교통카메라 등 디지털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물과 장소에서 생성될 수 있다.
- ◆ 위(위성영상)·지(지리정보)·통(통계) 빅데이터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통계법에 어떻게 이 데이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위·지·통 빅데이터를 좌표로 융합해야 한다. 통계 자료에 좌표값을 부여하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에 좌표값을 부여하여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도시와 농촌의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 데이터의 분산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위·지·통 빅데이터가 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이 전부 계수로만 나올 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된 데이터

나온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모든 통계데이터에 좌표를 부여해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어떻게 불균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빅데이터기술, 자동분석시스템과 융합하여 자동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동예측 시스템을 통해 정부조직이나 사회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들의 융합으로 인한 개인정보문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 세종시를 축으로, 수도권은 국제도시로, 남부권은 지역을 융합해야 한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대경제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업융합으로 인공태양, 인공광합성 물류를 묶고, 교통융합으로 하이퍼튜브,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묶어 각 분류된 지역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 ◆ 농어촌지역은 역구독경제와 지방소멸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틀게이트가 지역불균형의 주범이다. 국도와 지방도를 통과하면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생기면 접근성이 원초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모든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를 민영화시키고 종합휴게소를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 주택과 부동산 관련해서 통장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통장주택은 저당제도와 역저당 연금제도를 융합한 정책이다. 주택은 부동산이 아니라 반동산으로 생각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공급은 부동산이고 수요는 동산이라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 ◆ 농산어촌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구독 주택, 역구독 토지 정책을 제언한다. 농촌의 빈집과 빈토지를 활용하여 농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역구독은 돈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농촌의 빈집과 빈토지를 청년들이 돈을 받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신유목민 시대를 맞이해 도시농촌을 나누어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농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 청년들의 생애 최초 역구독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역구독 창업이란 창업을 하기만 하면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 월급은 정부에서는 개인데이터 사용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사용 이익이다. 이를 청년 창업의 월 소득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